

# 문학작품에서 술어 ta형과 ru형의 역할에 관한 일고찰

-표현내용의 관점에서-

조 선 영\*

(e-mail : sy218@pcu.ac.kr)

---

## 目 次

---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2. 선행 연구의 이해
  3. ta형과 ru형의 분포
  4. ta형과 ru형의 표현내용
    - (1) 유형 1 : ta형-ru형
    - (2) 유형 2 : ta형-ru형-ta형
    - (3) 유형 3 : ru형-ta형
    - (4) 유형 4 : ru형-ta형-ru형
  5. 연구가능성에 대한 시사(시제의 관점)
  6. 맺음말
- 
- 

##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문학 작품의 술어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로서 ta형과 ru형<sup>1)</sup>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특히 이야기 서술에 있어서는 ta형이 전형적인 형태라고

---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일본어교육) 전임강사, 일본어 표현 및 문체

- 1) 본 연구에서, ta형이라고 한 것은 과거형, 과거형중지, た형, 夕형 이라고 표현되어 온 술어형태이며, ru형이라고 한 것은 종래의 연구에서 현재형, 현재형중지(止め), 비과거형, 중지형, る형, ㄴ형 등으로 표현한 술어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ta형, ru형과 같이 형태 그대로 표시하여 현재나 과거라는 선입관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인식되어 왔으나 또 다른 술어형태인 ru형도 문학작품 속에서는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문체연구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시가나오야(志賀直哉)의 대표작인 ‘키노사키에서(城の崎にて)’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문[1]에서와 같이 ta형(한줄 밀줄)이 주류인 가운데 ru형(두줄 밀줄)의 문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虎斑の大きな肥つた蜂が天気さへよければ、朝から暮近くまで毎日忙しさに働いてゐた。蜂は羽目のあはひから摩抜けて出ると、一先づ玄関の屋根に下りた。其処で羽根や触角を前足や後足で丁寧に調へると、少し歩きまはる奴もあるが、直ぐ細長い羽根を両方へしつかりと張つてぶんと飛び立つ。飛立つと急に早くなつて飛んで行く。植込みの八つ手の花が丁度咲きかけで蜂はそれに群つてゐた。自分は退屈すると、よく欄干から蜂の出入りを眺めてゐた。(36-41)<sup>2)</sup>

그렇다면 ta형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되어지는 문학 작품 중에서 ru형은 과연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작품 중에서 ta형과 ru형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시가나오야의 몇 개 작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ta형과 ru형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본 논문은 주력하기로 한다. 이때 ta형과 ru형의 조합 유형에 따라 그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ta형과는 관계없이 ru형에만 주목하여 그 역할을 고찰해왔기 때문에, ta형과 ru형의 상호작용에는 소홀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문학작품은 여러 문장이 상호작용하여 문단을 만들고, 또한 전체 작품을 구성한다는 기본적인 이해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ta형과 ru형을 함께 인용하여 ru형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때 또한 ta형의 역할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ta형과 ru형은 기본적으로 시제의 대립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과거형’과 ‘비과거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이러한 시제의 대립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工藤(1997)는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 서술에 있어서는, 담화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발화하는 시점과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과거 시점과의 실제적인 시제가 대립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이 있음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시제에

2) ‘키노사키에서’의 예문은 志賀直哉全集(1974)에서 인용하였다. 예문의 끝에 표시한 (번호)는 첫 문장부터 부여한 문장의 일렬번호이다. 이를 통하여 각 문장의 전체 작품 속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중의 밑줄은 연구자에 의한 것으로, ta형에는 한줄 밑줄을, ru형에는 두줄 밑줄을 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후 동일.

관한 고찰을 함께 다루기에는 지면상 부족하지만, ta형과 ru형의 논의에서 시제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다음 연구에서의 가능성을 시사해 두기로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술어는 종래 ru형에만 주목하거나, 혹은 시제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파악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형과 ru형의 역할에 관하여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ta형과 ru형의 서술어가 교차되어 사용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표현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즉 ta형과 ru형이 과연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교차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ta형과 ru형의 역할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연구의 이해

문학작품에서의 ta형과 ru형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온 선행연구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이때 ru형은 소위 ‘역사적 현재(歴史的現在)’라고 하여 읽는 사람에게 현장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永野(1986)는 시가나오야의 ‘숨바꼭질(かくれん坊)’을 대상으로 역사적 현재인 ru형이 전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고찰하고 있다<sup>3)</sup>. 그 결과, ru형은 이야기의 커다란 즐거움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야기의 전후에서 호응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전반에서는 ‘역사적 현재’가 많이 사용되어 긴장감이 넘치는 ‘정적인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 후반에서는 ru형이 사용되지 않아 ta형만으로 ‘동적인 속도가 빠름’ 문장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ru형의 용법에 관하여 역사적 현재뿐만 아니라 보다 상세히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도 찾아볼 수 있다. 아쿠다가와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단편 ‘토로코(トロッコ)’의 지문의 ru형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片村(1980)와 岡崎(1989)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하고 있다<sup>4)</sup>. 먼저 片村은 ru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서, 과

3) 永野賢 (1986) 『文章論総説』 朝倉書店.

4) 片村恒雄 (1980.4) 「文学教材の表現(四)―『トロッコ』の現在形止め」 『解釈』 26(4), pp.50-54

岡崎晃一 (1989) 「『トロッコ』の文末表現―現在形止めの用法」 『水門』 16, pp.91-97.

거의 시간 중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오는 방법이 문장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적 기법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1) 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는 표현
- (2) 해설적 성격의 표현
- (3) ‘ことがある’
- (4) ‘のである’

岡崎는 片村의 분류를 토대로 ru형의 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A. 카타리테(語り手)의 해설
- B. 습관적인 행동
- C. 초시간적인 사실 및 판단
- D. 문말 표현의 변화<sup>5)</sup>
- E. 역사적 현재
- F. 카타리테의 현재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는 문학작품에서는 ta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본에서 벗어난 것으로 ru형의 출현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는 ta형과 ru형을 보다 대등하게 비교 고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真杉(1996)는, 홉퍼의 [텍스트 기능 대비도]를 이용하여 ‘아스펙트 지시기능과는 별도로, 해당 문장의 서술 중에서 전경화(前景化)와 후경화(後景化)하는 기능을 각각 가진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서술과 묘사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6)</sup>. 또한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도련님(坊っちゃん)’의 ta형과 ru형의 출현비율을 고찰한 논의에서는 ru형이 64%로 ta형의 36%보다 많았다. 이는 真杉가 다른 작품 7편을 조사한 결과에서 ru형이 39%였던 점과 비교해 볼 때 특정한 출현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岡崎(1997)의 대규모 조사결과<sup>7)</sup> 중에서, ru형이 60%이상을 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나츠메 소세키의 작품 발표시기인 메이지 시기라고 분류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岡崎의 연구에

5) 문말 표현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분류와는 이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6) 真杉理恵 (1996.11) 「テキスト機能としてのタ形・ル形(1)―漱石『坊っちゃん』のテキスト分析を通して」 『榊原邦彦 解釈学』 18, pp.65-72

7) 岡崎晃一 (1997.3) 「近代文学のル形・タ形」 『国語教育』 12, pp.126-130. 『日本現代文学全集』 (講談社版) 전 108권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및 동화 모두 1120편의 텍스트와 그 작가 208명을 고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 소세키는 ru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작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도련님’은 작품 활동 중 비교적 빠른 시기의 작품이므로, ru형의 출현률이 높은 것은 시대적인 경향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작가 개인적인 특징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이 ta형과 ru형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 용법에 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池上(1986)는 일본어에는 과거형과 현재형의 교체가 [역사적 현재]라는 용법이상으로 빈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동사의 <타동성>이 낮은 것과, 객관적인 [이야기(語り)]안에 주관적인 [평가(評価)]가 섞여서 들어가기 쉬운 점을 들고 있으며, 행위에 관련된 동사 보다는 상태에 관련된 동사가 더 현재형(본 연구의 ru형)이 되기 쉽다고 보고 있다.

藤井(2005)는 문학작품에서의 ta형과 ru형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형으로 끝나는 문장은 카타리테(語り手)의 시점이 이야기 세계에 멈추어서 서술하는 문장이나, 「た」나 「けり」로 끝나는 문장은, 이야기 세계를 그린 카타리테의 시점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8)</sup>. 藤井는 과거형이 이야기(物語)의 기본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이야기세계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작가(語り手)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비현실 세계의 서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과거형의 서술 형태에 따라서 작가는 현실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工藤(1997)<sup>9)</sup>는 시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3인칭소설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sup>10)</sup>.

- (1) 실제적인 외적 사건의 제시부분 <이야기 서술(かたり)>
- (2) 등장인물의 내적 의식 제시부분 <내적 독백(內的 獨白)> <묘사화법(描出 話法)>
- (3) 실제적이지 않은 사건의 제시부분 <해설(解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작품의 ta형과 ru형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기본적인 ta형과는 다른 ru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며, 시제의 측면에서도 과거형인 ta형에 대비되는 시제로서 ru형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장에서도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ru형은 ta형과 함께 상호

8) 藤井俊博 (2005.1) 「物語テキストの視点と文末表現」日本文学, 24(1), pp.34-49, 明治書院

9) 工藤真由美(1997)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ひつじ書房

10) 시제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이 구분만은 참고하기로 한다.

작용하면서 문장내에서 혼용되고 있으므로, ta형의 역할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락 안에서도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ta형과 ru형 중 어느 한쪽을 주된 것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양쪽을 대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지는 기본적인 고찰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ta형과 ru형이 서로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두 형태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sup>11)</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형과 ru형의 표현에 있어서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ta형과 ru형의 문장이 어떻게 조합되어서, 각 유형별로 어떤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기존 ru형의 문장에만 집중되던 시각을 ta형과 ru형의 문장유형으로 넓혀감으로써 표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 3. ta형과 ru형의 분포

선행연구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ta형과 ru형이 작품별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포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 <표1>은 회화문을 제외한 지문에서의 ta형과 ru형의 출현비율로서, 시가나오야의 4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ta형과 ru형의 분포

작품명	ta형	ru형	ru형의 분포 <sup>12)</sup>
「ある一頁」(1911)	481문	59문	10.9%
「城の崎にて」(1917)	140문	57문	28.9%
「十一月三日午後の事」(1919)	173문	25문	12.6%
「灰色の月」(1946)	57문	3문	5.0%

11) 종래의 논의에서 혼용의 인식이 적었던 것은 아쿠다가와의 ‘토로코(トロッコ)’에서는 단락안에서의 혼용이 많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시가나오야의 ‘키노사키에서’에서는 대부분 혼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여기에 밝혀둔다.

12) ru형의 분포라는 것은, ta형과 ru형의 합계에 대한 ru형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시가는 岡崎(1997)의 조사에서 작품의 발표시기가 늦어질수록 ru형이 증가하는 작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표1>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망라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지에 따라 분포의 정도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 시가는 작품에 따라 ta형과 ru형의 분포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 작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1>을 보면 작품 속에서 ru형의 분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키노사키에서(城の崎にて)’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8.9%이므로 3, 4문장 중 1문장 이상이 ru형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음 예문[3]과 같이 ru형이 집중적으로(여기서는 4문장) 모여 있는 곳도 있어서,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ru형이 약 29%나 있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는다.

[3] 頭の上に三寸程、咽喉の下に三寸程それが出てゐる。鼠は石垣へ這上らうとする。子供が二三人、四十位の車夫が一人、それへ石を投げる。却々当らない。(76-79)

또한 다음 예문[4]와 같이, ta형과 ru형이 같은 단락안에서 혼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4] 自分はよく怪我の事を考へた。一つ間違へば、今頃は青山の土の下に仰向けになつて寝ている所だつたなど思ふ。青い冷たい堅い顔をして、顔の傷も背中の傷も其低で。祖父や母の死骸が傍にある。それももうお互に何の交渉もなく、—こんな事が想ひ浮ぶ。それは淋しいが、それ程に自分を恐怖させない考だつた。(18-23)

주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쿠다가와의 토로코(トロッコ)는 단락별로 모든 문장이 ru형인 단락과 모든 문장이 ta형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ru형의 역할을 보다 간결하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예문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가의 작품에서 ta형과 ru형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포정도가 아닌,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ta형과 ru형이 혼용되어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두 가지 형태가 상호 작용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4. ta형과 ru형의 표현내용

본 연구에서는 ta형과 ru형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ru형의 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시가나오야의 ‘키노사키에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ta형과 ru형의 조합유형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ta형과 ru형은 전체적인 작품 안에서 볼 때 ta형-ru형-ta형-ru형-ta형과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유형을 구분할 때는 어느 곳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ta형-ru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 이어지는 ta형까지 포함하여, ‘ta형-ru형-ta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ta형과 ru형의 유형을 구분할 지 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단락이 나누어지는 부분(인용한 예문에서 ▶표시함)
- b. 장면이 바뀌는 부분
- c. 주어가 바뀌는 부분

하지만 실제로는 ta형의 문장이 이어지는 도중에 ru형이 집중되어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부분의 유형 구분은 위의 기준으로 문체가 없었다<sup>13)</sup>. 이런 기준을 토대로 하여 ta형과 ru형의 가능한 출현유형을 조합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괄호안의 숫자는 ‘키노사키에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합의 개수이다.

- (1) 유형1 : ta형-ru형(10)
- (2) 유형2 : ta형-ru형-ta형(11)
- (3) 유형3 : ru형-ta형(5)
- (4) 유형4 : ru형-ta형-ru형(2)

가장 많은 조합은 유형2의 ta형-ru형-ta형과 유형1의 ta형-ru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ru형에 주목하는 경우는, 유형2와 같은 ta형에 둘러싸인 ru형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구분에서와 같이 ta형-ru형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u형으로 시작하여 ta형으로 끝나는 유형3도 5조합이나 찾아볼 수 있었으며, ru형이 보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u형에 둘러싸인 ta형, 즉 유형4도 2조합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로 예문을 제시하면서 ta과 ru형의 문장이 각각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지 그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 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유형1과 유형2를 <표2>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고, 유형3과 유형4에 관하여 <표3>에서 정리해 보았다.

13) 일부 ta형- ru형 -ta형- ru형 -ta형과 같이 1-3문장이 빈번하게 교차되면서 연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1) 유형1 : ta형-ru형

예문 [5]와 같이 ta형의 문장 뒤에 ru형의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ta형으로 자신(自分)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이 ru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5] 冷々とした夕方、淋しい秋の山峽を小さい清い流れについて行く時考へる事は矢張り沈んだ事が多かつた。淋しい考だつた。然しそれには静かないい氣持がある。(15-17)

예문 [6]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ta형 문장으로 서술된 이후, 이에 대한 분석이 ru형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6] で、又それが今来たらどうかと思つて見て、猶且、余り変らない自分であらうと思ふと「あるがまま」で、氣分で希ふ所が、さう實際に直ぐは影響はしないものに相違ない、しかも両方が本統で、影響した場合は、それでよく、しない場合でも、それでいいのだと思つた。それは仕方のない事だ。(121-122)

예문 [7]에서는 자신의 기분이 변화한 것에 대한 설명이 ta형 문장으로 제시된 이후, 5개의 ru형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자신의 기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ru형 문장이 이어진다.

[7] 亢奮から自分は非常に快活になつた。フェータルなものだと若し聞いたら自分はどうだつたらう。その自分は一寸想像出来ない。自分は弱つたらう。然し普段考へてゐる程、死の恐怖に自分は襲はれなかつたらうといふ氣がする。そしてさういはれても尚、自分は助からうと思ひ、何かしら努力をしたらうといふ氣がする。それは鼠の場合と、さう変らないものだつたに相違ない。(114-120)

예문 [8]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이어서 느낌의 변화가 ta형 문장으로 표현된 이후, 느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ru형의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8] 自分はそれを何気なく、踞んで見てゐた。自分は先程蠨螋は嫌ひでなくなつた。蜥蜴は多少好きだ。屋守は蟲の中でも最も嫌ひだ。蠨螋は好きでも嫌ひでもない。(147-151)

예문 [9]에서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설명 및 습관이 ta형으로 제시된 후 보다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설명 및 자신의 추측이 ‘らしい’와 같이 ru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9] ▶<sup>14)</sup>自分の部屋は二階で、隣のない、割に静かな座敷だつた。読み書きに疲れるとよく縁の椅子に出た。脇が玄関の屋根で、それが家へ接続する所が羽目になつてゐる。其羽目の中に蜂の巣があるらしい。(32-35)

예문 [10]에서도 상황설명이 ta형으로 제시된 이후, '事であらう', '事だらう', 'してゐるだらう'와 같이 자신의 추측에 해당하는 내용이 ru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10] ▶夜の間にひどい雨が降つた。朝は晴れ、木の葉も地面も屋根も綺麗に洗はれてゐた。蜂の死骸はもう其処になかつた。今も巣の蜂共は元気に働いてゐるが、死んだ蜂は雨樋を伝つて地面へ流し出された事であらう。足は縮めた俛、触角は顔へこびりついたまま、多分泥にまみれて何処がで凝然としてゐる事だらう。外界にそれを動かす次の変化が起るまでは死骸は凝然と其処にしてゐるだらう。それとも蟻に曳かれて行くか。(53-59)

예문 [11]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ta형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ru형에서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지고 있다.

[11] ある午前、自分は円山川、それからその流れ出る日本海などの見える東山公園へ行くつもりで宿を出た。「一の湯」の前から小川は往来の真中をゆるやかに流れ、円山川へ入る。(70-71)

예문 [12]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 및 발견한 것에 대한 설명이 ta형으로 제시된 후, 발견한 것을 짧은 ru형 문장으로 언급하고 있다.

[12] 自分は何気なく傍の流れを見た。向う側の斜めに水から出てゐる半畳敷程の石に黒い小さいものがゐた。鱉蜥だ。(141-143)

한편 예문 [13]에서는 목격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ta형으로 제시된 후 이어지는 ru형에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문말이 'のだ'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13] 或所迄来ると橋だの岸だのに人が立つて何か川の中の物を見ながら騒いでゐた。それは大きな鼠を川へなげ込んだのを見てゐるのだ。(72-73)

예문 [14]에서는 목격한 것에 대한 설명이 ta형 문장으로, 그리고 목격한 것 중 자연(水)에 대한 설명은 ru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14) 인용예문의 ▶표시는 논자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 단락이 바뀌었음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로 전체 문장 중에서 단락이 바뀐 것은 11곳이다.

[14] 未だ濡れてゐて、それはいい色をしてゐた。頭を下に傾斜から流れへ臨んで、凝然としてゐた。体から滴れた水が黒く乾いた石へ一寸程流れてゐる。(144-146)

## (2) 유형2 : ta형-ru형-ta형

ta형의 문장이 앞뒤로 있고, 중간에 ru형의 문장이 배치되는 경우이다. 예문 [15]에서는 ‘いい所があつた’와 같은 주변 배경을 ta형으로 표현하고 후속하는 문장에서 ru형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ta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때 ‘よく’와 같은 부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습관적인 행동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15] 散歩する所は町から小さい流れについて少しづつ登りになつた路にいい所があつた。山の裾を廻つてゐるあたりの小さな潭になつた所に山女が沢山集つてゐる。そして尚よく見ると、足に毛の生えた大きな川蟹が石のように凝然としているのを見つける事がある。夕方の食事前にはよくこの路を歩いて来た。(11-14)

예문 [16]에서는 주변환경에 대한 감각묘사가 ta형으로 이어지며, 이와 대비되는 자신의 ‘頭だけが勝手に働く’가 ru형으로 표현되었으며, 후속하는 문장에서는 자신의 기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ta형이다.

[16] もうかなり暗かつた。視覚は遠い灯を感ずるだけだつた。足の踏む感覚も視覚を離れて、如何にも不確だつた。只頭だけが勝手に働く。それが一層さういふ気分自分に自分を誘つて行つた。(192-196)

다음 예문 [17]에서는 벌에 대한 설명이 먼저 ta형의 문장으로 제시된 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ru형 문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群があつた’와 같은 ta형 문장이 이어진 후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이 ta형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17] 虎斑の大きな肥つた蜂が天気さへよければ、朝から暮近くまで毎日忙しさに働いてゐた。蜂は羽目のあはひから摩抜けて出ると、一、先づ玄関の屋根に下りた。其処で羽根や触角を前足や後足で丁寧<sup>ていねい</sup>に調べると、少し歩きまはる奴もあるが、直ぐ細長い羽根を両方へしつかりと張つてぶんと飛び立つ。飛立つと急に早くなつて飛んで行く。植込みの八つ手の花が丁度咲きかけで蜂はそれに群つてゐた。自分は退屈すると、よく欄干から蜂の出入りを眺めてゐた。(36-41)

예문 [18]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사항에 대하여 ta형으로 표현한 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ru형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어지는 ta형 문장에서 그 생각

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18] 自分はよく怪我の事を考へた。一つ間違へば、今頃は青山の土の下に仰向けになつて寝ている所だつたなど思ふ。青い冷たい堅い顔をして、顔の傷も背中の傷も其俛で。祖父や母の死骸が傍にある。それももうお互に何の交渉もなく、一こんな事が想ひ浮ぶ。それは淋しいが、それ程に自分を恐怖させない考だつた。(18-23)

예문 [19]에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록 의문문의 형태이긴 하나 ta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후 자신의 추측이 4개 ru형문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추측에 이어서, ‘さう思つた’라는 ta형 문장이 이어진다.

[19] 死んだ蜂はどうなつたか。其後の雨でもう土の下に入つて了つたらう。あの鼠はどうしたらう。海へ流されて、今頃は其水ぶくれのした体を塵芥と一緒に海岸へでも打ちあげられてゐる事だらう。そして死ななかつた自分は今かうして歩いてゐる。さう思つた。(182-187)

다음 예문 [20]과 [21]에서도 자신의 느낌에 대하여 ta형으로 표현한 후 그 느낌에 관하여 ru형(のだ, 事だ) 문장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속되는 ta형은 상태(てゐた) 및 느낌에 대한 서술이다.

[20] 忙しく立働いてゐる蜂は如何にも生きてゐる物といふ感じを与へた。その傍に一疋、朝も昼も夕も、見る度に一つ所に全く動かずに俯向きに転つてゐるのを見ると、それが又如何にも死んだものといふ感じを与へるのだ。それは三日程その俛になつてゐた。それは見てゐて、如何にも静かな感じを与へた。(46-49)

[21] 自分は淋しい嫌な氣持になつた。あれが本統なのだと思つた。自分が希つてゐる静かさの前に、ああいふ苦しみのある事は恐ろしい事だ。死後の静寂に親しみを持つにしろ、死に到達するまでのああいふ動騷は恐ろしいと思つた。(94-97)

예문 [22]에서는 주변에 대한 감각이 ta형으로 묘사되고 이에 대한 분석이 ru형으로 이루어지며, 이어지는 ta형에서는 자신의 느낌이 표현되고 있다.

[22] それにしろ、それは如何にも静かであつた。忙しく忙しく働いてばかりゐた蜂が全く動く事がなくなつたのだから静かである。自分はその静かさに親しみを感じた。(60-62)

예문 [23]에서는 쥐의 행동이 ta형으로 표현된 후 이어지는 행동은 ru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자신의 생각을 ta형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23] 鼠は石垣の間に漸く前足をかけた。然し這入らうとすると魚串が直ぐにつかへた。そして又水へ落ちる。鼠はどうかして助からうとしてゐる。顔の表情は人間にわからなかつたが動作の表情に、それが一生懸命である事がよくわかつた。(82-86)

예문 [24]에서는 자신의 행동 및 생각, 그리고 목격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ta형으로 이어지며, ru형의 짧은 문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이후 다시 ta형으로 분석 및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24] 自分はどうしたのかしら、と思つて見てゐた。最初石が当つたとは思はなかつた。蠓螈の反らした尾が自然に静かに下りて来た。すると肘を張つたやうにして傾斜に堪へて、前へついてゐた両の前足の指が内へまくれ込むと、蠓螈は力なく前へのめつて了つた。尾は全く石についた。もう動かない。蠓螈は死んで了つた。自分は飛んだ事をしたと思つた。(164-171)

다음 예문 [25]는 전체 작품 중의 마지막 문장으로, 자신의 행동을 ta형으로, 현재에 대한 서술을 ru형으로, 또한 ta형으로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다.

[25] ▶三週間ゐて、自分は此処を去つた。それから、もう三年以上になる。自分は脊椎カリエスになるだけは助かつた。(197-199)

이상의 분석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표2>와 같이 간략화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표는 예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토대로 전체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형1의 ta형-ru형에서의 표현내용과 유형2의 일부분인 ta형-ru형의 표현내용이 동일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생각묘사의 ta형과 분석의 ru형이 이어지는 경우가 유형1에서 2조합 있었는데, 유형2에서는 생각묘사의 ta형에 이어서 ru형의 설명이 추가된 후에 ta형의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각묘사의 ta형에 이어서, 유형1에서는 ru형의 분석이 이루어진 반면에, 유형2에서는 ru형의 설명이 추가됨으로써 ta형의 분석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ru형만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ta형과 함께 그 조합에 있어서의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목격장면묘사의 ta형과 그에 대한 분석인 ru형으로 이루어진 유형1과

는 달리, 유형2에서는 ta형의 행동, 생각, 생물체 묘사 등에 이어서, ru형으로 비로서 장면이 묘사되고, 이어지는 ta형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느낌까지 표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ta형-ru형과 ta형-ru형-ta형 문장의 유형별 표현내용

ta형	유형		ta형-ru형 (10)	ta형- ru형 (11)	ta형	계
	ru형					
생각 묘사	분석		2	0	0	4
	설명		0	1	분석 1	
	추측		0	1	‘さう思つた’	
기분 묘사	추가 설명, 분석		1	0	0	5
배경에 대한 감각 묘사	자신의 감각묘사		0	2	기분변화 1 느낌1	
느낌 묘사	분석		0	2	상태1+ 느낌1 생각1	
행동 및 느낌 묘사	추가 설명		1	0	0	1
행동 묘사	배경 묘사		1	0	0	2
	현재 서술			1	분석1	
행동 및 생물체묘사	물체 인식		1	0	0	1
공간 묘사	추가 설명 및 추측		1 (습관ta)	1	습관 1	4
상황 묘사	추측		1	0	0	
목적장면 묘사	장면에 대한 분석		1	0	0	1
행동, 생각, 생물체묘사	목적장면묘사		0	1	분석1+ 느낌1	
목적생물체 묘사	자연 묘사		1	0	0	3
	추가 설명		0	2	설명1+ 습관1 생각1	

## (3) 유형3 : ru형-ta형

ru형의 문장 뒤에 ta형의 문장이 이어지는 다음 예문[26]와 같은 경우로, 이때 단락이 바뀌면서 바로 ru형의 문장이 표현되고 있다.

[26] ▶一人きりで誰も話相手はない。読むか書くか、ぼんやりと部屋の前の椅子に腰かけて山だの往來だのを見てみるか、それでなければ散歩で暮してゐた。(9-10)

예문 [26]에서는 ru형의 문장인 ‘話相手はない’와 같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묘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후속하는 ta형의 문장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27]에서는, ru형의 문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제시되고, 이후 생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ta형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27] 何時かはさうなる。それが何時か?—今迄はそんな事を思つて、その「何時か」を知らず知らず速い先の事にしてゐた。然し今は、それが本統に何時か知れないやうな気がして来た。(24-26)<sup>15)</sup>

한편 예문[28]에서는, ru형의 문장에서 카타리테가 ‘목격한 장면’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ta형 문장에서 해당 상황의 진행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예문[29]에서도 ‘목격한 장면’에 대한 것은 ru형으로 도입된 이후, 자신의 인지 및 생각은 ta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28] 子供が二三人、四十位の車夫が一人、それへ石を投げる。却々当たらない。カチカチッと石垣に当って跳ね返つた。見物人は大声で笑つた。(78-81)

[29] 大きな桑の木が路傍にある。彼方の、路へ差し出した桑の枝で、或一つの葉だけがヒラヒラヒラヒラ、同じリズムで動いてゐる。風もなく流れの他は総て静寂の中にその葉だけがいつまでもヒラヒラヒラヒラと忙しく動くのが見えた。自分は不思議に思つた。(127-130)

예문 [30]에서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대한 분석 및 그 장면에 대한 당시의 자신의 생각까지 ru형의 문장으로 표현한 후, 후속하는 ta형의 문장에서는 그때를 회상하고 있다<sup>16)</sup>.

15) 이후 31번째 문장까지 ta형의 서술이 계속됨.

16) 문학작품의 ru형의 역할에 관하여 언급하는 경우 가장 쉽게 거론되는 것이 ‘현장감’있는 표현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自殺を知らない動物はいよいよ死に切るまではあの努力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今自分にあの鼠のやうな事が起つたら自分はどうするだらう。自分は矢張り鼠と同じやうな努力をしはしまいか。自分は自分の怪我の場合、それに近い自分になつた事を思はないではゐられなかつた。(98-101)

(4) 유형4 : ru형-ta형-ru형

예문[31]과 같이 ru형 1문장에 이어, ta형문장이 2문장 계속되고, 다시 ru형 문장이 1문장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특히, 한 단락으로 구성된 부분이므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1] ▶頭は未だ何だか明瞭しない。物忘れが烈しくなつた。然し気分は近年になく静まつて、落ちつきたい気持ちがしてゐた。稲の穫入れの始まる頃で、気候もよかつたのだ。(5-8)

자신의 상태에 대해 ru형 문장으로 먼저 제시한 후 자신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ta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ru형으로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이때 마지막 문장은 ‘のだ’를 포함하여 ‘気候もよかつた’라는 주변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문 [32]에서는 ru형으로 목격한 장면을 제시하고, ta형으로 부가설명, 그리고 ru형으로 부가설명이 이어진다.

[32] 鼠は一生懸命に泳いで逃げよとする。鼠には首の所に七寸ばかりの魚串が刺し貫してあつた。頭の上に三寸程、咽喉の下に三寸程それが出てゐる。鼠は石垣へ這上らうとする。(74-76)

이상의 내용을 간략화하여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ru형-ta형과 ru형-ta형-ru형의 유형별 묘사내용

타형 \ ru형	유형	ru형-ta형 (5)	ru형-ta형-ru형 (2)	계	
생각 묘사	생각묘사(변화)	1	0	1	
기분 묘사	추가설명	0	1	のだ	1
상황 묘사	추가설명	1	0		1
목격장면 묘사	진행과정	1	0		3
	장면 인지, 생각	1	1	장면묘사	
목격장면 분석 생각,	회상	1	0		1



이와 같은 예는 많지 않지만, 생각이나 상황, 목격한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에 ru형이 ta형 앞에 위치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연구가능성에 대한 시사(시제의 관점)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ta형과 ru형을 ‘비과거형’과 ‘과거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제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못했지만, 시제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工藤(1997)는 문학작품에서는 ‘이야기(かた)의 텍스트’에서는 ‘담화(はなしあいの 텍스트)’에서와는 시제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17)</sup>. ‘이야기’에서는 과거형이 주도적인 시제형식이긴 하나, 현실에서의 발화행위시점에 다이크틱한 관계연결이 없는 ‘서사시적인 시간’의 제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텍스트 내부의 사건간의 시간관계(=타크시스)인 것이다. 즉, 이때의 과거형은 ‘작중 인물의 지금’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리고서(それから)’의 앞부분을 제시하면서 두 번째 단락의 과거형이 첫 번째 단락의 과거형과는 다른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3] 誰か慌ただしく門前を駆けて行く足音がした時、代助の頭の中には、大きな下駄が空から、ぶら下がっていた。けれども、その下駄は、足音の遠退くに従って、すうと頭から抜け出して消えてしまった。そして目が覚めた。

枕元を見ると、八重の椿が一輪豊の上に落ちている。代助は昨夜床の中でこの花の落ちる音を聞いた。彼の耳には、それが護毬を天井裏から投げ付けたほどに響いた。夜が更けて、四隣が静かな所為かとも思ったが、念のため、右の手を心臓の上に載せて、はずれに正しく中る血の音を確かめながら眠に就いた。

이에 대한 工藤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두 번째 단락의 제1문장의 ‘떨어져 있다(落ちている)’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눈을 뜬(目が覚めた)’ 시점과 동일한 시점인 것으로 비과거형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이어지는 문장은 聞いた、響いた、就いた등의 과거형인데, 이는 제1문장의 시점 이전의 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두 번째 단락의 제 1문장의 비과거형

17) 工藤真由美(1997)『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ひつじ書房

과 제2,3,4문장의 과거형이 이야기세계의 사건시점(눈을 뜬 시점)을 기준축으로 하는 ‘상대적시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과거형은 비과거형으로 바꿀 수 없다. 여기서 ‘어젯밤(昨夕)’이라는 시간부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텍스트 내부의 사건간의 시간관계에 따라 상대적인 시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때의 과거형은 비과거형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비과거형은 등장인물의 내적시점을 전면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은 과연 어떤가?

[34] 何時かはさうなる。それが何時か？—今迄はそんな事を思つて、その「何時か」を知らず知らず遠い先の事にしてゐた。然し今は、それが本統に何時か知れないやうな気がして来た。(24-26)

‘今迄は’로 시작하는 문장도 ta형이고, 이어지는 ‘今は’로 시작하는 문장도 ta형이다. ‘今は’로 시작하는 문장은 ‘気がする’와 같은 ru형도 가능하므로, 工藤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気がして来た’를 ‘気がする’와 같이 교체하는 경우의 의미의 차이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시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工藤의 인식과 같이 ru형과 ta형이 이야기 속 시점에서 상대적인 시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추후 연구의 가능성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35] 自殺を知らない動物はいよいよ死に切るまではあの努力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今自分にあの鼠のやうな事が起つたら自分はどうするだらう。自分は矢張り鼠と同じやうな努力をしはしまいか。自分は自分の怪我の場合、それに近い自分になつた事を思はないではゐられなかつた。(98-101)

선행하는 3문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석 또는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나타내기 위하여 ru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상을 이어지는 ta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에서의 전형적인 시제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고 인식되어 왔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ru형 문장을 인용부호(「 」)안에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일부러 보다 현실감을 주기 위하여,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를 시제의 대립 뿐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 맺음말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과거형과 비과거형으로 대립되어 왔던 ta형과 ru형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학작품에서는 특히 기본적인 형태를 ta형이라 인식하고 이와는 다른 ru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ta형의 문장과 ru형의 문장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형과 ru형이 조합되는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보다 상세하게 각 조합에서의 표현내용을 고찰하였다. 먼저 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ta형-ru형-ta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ta형-ru형도 10건이나 있었다. 이는 기존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u형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ta형이 이어지는 조합도 5건 있었다. 또한 표현내용의 고찰에서는 다양한 묘사 및 분석, 추가 설명등과 같은 역할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유형에 따른 표현내용의 차이는 작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제의 관점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이 부분도 연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 【参考文献】

- 池上嘉彦(1986) 「日本語の語りのテキストにおける時制の転換について」 日本記号学会編 『語り—文化のナラトロジー』
- 岡崎晃一 (1989) 「『トロッコ』の文末表現—現在形止めの用法」 『水門』 16,pp.91-97
- 岡崎晃一 (1997.3) 「近代文学のル形・タ形」 『国語教育攷』 12,pp.126-130
- 片村恒雄 (1980.4) 「文学教材の表現(四)—『トロッコ』の現在形止め」 『解釈』 26 (4) ,pp.50-54
- 工藤真由美(1997)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 ひつじ書房
- 永野賢 (1986) 『文章論総説』 朝倉書店.
- 藤井俊博 (2005.1) 物語テキストの視点と文末表現, 日本語学, 24(1), pp.34-49
- 真杉理恵 (1996.11) 「テキスト機能としてのタ形・ル形(1)—漱石『坊つちやん』のテキスト分析を通して」 『榊原邦彦 解釈学』 18, pp.65-72

## 要 旨

本論は、文学テキストにおけるta形とru形について新たな考察を試みるものである。従来、ta形とru形は過去形と非過去形といわれ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テンスの観点からの分析が主であった。しかも、文学テキストにおける基本文末形はta形であるという認識から、主に注目されてきたのはta形の文の間に表れるru形であった。しかし、テキストの中においてta形とru形は常に交差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本論ではその両方を考察すべきであると提案したのである。

考察はta形とru形の割合を調査することから始め、地の文の中でのru形の割合が高い方である志賀直哉の「城の崎にて」の全文を対象にした。まず、ta形とru形の組合の類型を4つにし、その類型別にそれぞれの文の表現内容について詳細に調べ、ta形の文とru形の文が文章の中でどのような内容を表すために用いられているかについて分析してみた。もっとも多かった類型は11件のta形-ru形-ta形という組み合わせだったが、ta形-ru形という組み合わせも10件あり、やはりこの組み合わせに注目すべき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さらに、ru形-ta形も5件あり、ru形-ta形-ru形も2件あった。ru形もより積極的にそ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のである。さらにそれぞれの例文の表現内容を詳細に分析した結果、どのような類型かによってその表現している内容がちがうという印象が伺えた。この点については、これから他の書き手の文の分析とともに考察を深めていきたい。

最後に今回は取り上げられなかったテンスについては、今後の研究の可能性を覗かせておいた。

キーワード：ta形、ru形、過去形、非過去形、表現、描写、説明、分析、志賀直哉、‘城の崎にて’、テンス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